

1950년대 소설에서의 父의 不在와 모더니티*

김민정

- | | |
|------------------------|------------------------------|
| 1. 글을 시작하며 | 4. 일상/전쟁의 윤리와 '父의 不在'의
운폐 |
| 2. 전후소설과 父의 存在의 결여 | 5. 맷음말 |
| 3. 죄의식으로의 도피와 부친살해의 욕망 | |

1. 글을 시작하며

1950년대 한국의 전후문학은 단적으로 전쟁이 빚어낸 물질적, 정신적 폐허의 실상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이다. “파괴와 살육의 비인도적 행위가 공적으로 승인된 전장의 상황은 문학적인 상상력보다 고발과 증언을 강력하게 요청한다”¹⁾는 지적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헤아릴 수 없는 인명의 살상과 물질적인 황폐화, 그리고 인간성의 파괴 등, 전쟁의 상흔은 전후문학 전반을 통해 여실히 기록되어 있다. 3년여에 걸친 동족간의 전쟁은 신·구 세대를 막론하고 당시 작가들의 의식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시대와 암담한 역사에 대한 도저한 절망에 갇힌 작가들은 불모지화된 한국문학을 새롭게 재건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언어의 혼란²⁾과 감정의 극대화 현상을 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예고되지 않은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AA22002)

1)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제 2판, 일지사, 1994, 265면.

2) 전후 세대 작가들은 “일본어로 초급교육을 받고, 해방 후에는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찢긴 세대”에 속해 있었다.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9, 254면.

해방을 맞이하고 근대적 모순의 폭발적 형태인 전쟁을 체험한 작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그 불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일단은 감정적 반응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성적으로 일련의 사태를 파악하기에 전쟁으로 인한 당대 작가들의 의상은 치유되기에 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나 판단보다도, 추상적인 당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이끌리는 의식의 경향도 두드러졌다. 왜 해방이 되었는지, 왜 전쟁이 발발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자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반성보다는 그러한 것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논리적 야만주의가 1950년대 문학 전반에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³⁾ 이것이 1950년대 문학에 대한 평가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추상적인 무시간성의 형식에 얹매여 당대 현실에 대한 탐구가 빈약했다’는 한계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⁴⁾ 전후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인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대 문학에 대한 평가의 상당부분이 ‘인간성 회복’ 혹은 ‘휴머니즘’이라는 수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이 시기 문학을 포괄해 내기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감상적인 접근방식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전쟁의 상황과 그것에 관한 기억은 당대의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기 문학의 연구자들에게도 작품에 대한 분석 가능한 거리를 제한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1950년대를 전쟁상황으로 규정하고 출발하는 현상차원의 논리전개는 문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협을 안고 있다.⁵⁾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1950년대 문학 연구에 있어서 주로 주목되었던 것은 전쟁의 충격에 대한 극복을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문학적으로는 실존주의 등의 의래 사조를 수용하면서 전후 현실의 암울성과 그에 대응하는 문학

3)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 지성사, 1991, 242면.

4) 김동환,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의 추상화방법연구」,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 정호웅, 「50년대 소설론」,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등 참조.

5) 우한용, 「전후문학의 양상과 연구과제」,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46면.

정신의 치열성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곧, 1950년대 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적 문제 의식이 전쟁의 극복 외에는 별다르게 조명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거의 소재적인 차원에서 주목된 것이어서, 그 소재를 통해 작품들이 암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근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관심을 가진 대상은 우선 전후세대 작가들이다. 문학적인 전통이 여타의 관습화된 사회적인 형태나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인 지배와 문화적인 헤게모니 요소와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⁶⁾ 1950년대의 문학이 과거의 문학과 대면하면서 드러내는 '부정적인' 힘을 드러내는 데에는 아무래도 전후세대 작가들의 위치가 더 유리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⁷⁾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서기원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서기원은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등과 함께 전후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이면서도, 전쟁 이후 등단했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소설사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하는 징후들"⁸⁾을 내보인 바 있다. 해방 이전부터 창작활동을 해온 구세대 작가들과 전후세대 중에서도 전쟁 이전에 등단한 작가들이 주로 추상적 무시간성의 세계에 갇혀 있거나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와 소박한 휴머니즘을 가치척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전쟁을 유년시절에 경험한 초기 4·19세대 작가들이 6·25세대와의 단절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서기원과 같은 작가의 전쟁에 대한 소설적 대응방식이 그 前後 세대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⁹⁾

앞서 언급한 전후문학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해 서기원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전쟁이라고 하는 一見 非知의인 체험대상을 극

6) A. Eysteinsson, *The Concept of Modernity*, 임옥희 역, 현대미학사, 1996, 84면.

7) 김현은 1950년대 문학인들이 휴머니즘론에 경도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작가들의 인정론적 휴머니즘에 대한 은근한 경사와 비평가들의 인정론적 휴머니즘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크게 구분한 바 있다.(김현, 앞의 책, 245-6면 참조)

8)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개정증보판, 문학동네, 2000, 372면.

9) 구인환은 서기원, 이호철, 하근찬 등 전쟁 이후에 등단하여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현실을 묘사한 '전후세대' 작가들을 손창섭, 장용학 등의 '전쟁 세대'와 구별한 바 있다.(「전후 한국문학의 지형도」,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참조)

히 知的인 체험으로 승화시켜 놓고 있다”¹⁰⁾는 평가에 잘 집약되어 있듯이, 그의 문학은 비참한 전쟁의 실상을 고발하는 데 머무르거나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를 추종하지 않았고, 또 소박한 휴머니즘을 담아내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기원이 등단 시기부터 전쟁의 비극성을 고찰함에 있어 지적인 면모가 두드러졌다. 점과 윤리의식을 화두로 삼았다는 점은 1950년대의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라 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전쟁체험에 대한 서기원의 소설적 대응의 핵심이 ‘죄의식’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부의 부재’라는 전후의 역사적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父의 부재’ 현상을 1950년대 전후 소설의 특수성, 나아가 전후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의식과 그 실현 방식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모티프로 설정한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의 ‘부의 부재’라는 각도에서 이 시기 문학을 조명하는 작업은 한국 문학사 속에서의 1950년대 문학의 보편성과 차별화된 면모를 밝혀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전후소설과 ‘父의 存在’의 결여

‘부의 부재’라는 테마는 한국 근대문학사를 통해 꽤 익숙해진 테마이다. 즉 ‘부의 부재’라는 것이 한국문학에 있어서 1950년대라는 한정된 역사적 시기에만 적용되는 수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父’란 살아있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권위의 무게를 갖는 그 이름 자체(아버지의-이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 존재는 현실에서의 아버지의 부재 혹은 혼존과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식민지 기간을 두고 ‘부(父)의 상실’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래, 해방 이전까지 그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문학을 전개해야 했던 문인들의 정신구조의 저변을 밝히는 단서가 되었으며, 일종의 이념태로서의 국가 개념의 결여를 지칭하는 것이었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그러나 1950년대 문학(소설)에서의 부의 결여는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설

10) 유종호, 「전쟁체험의 지적처리」, 『현대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66, 466면.

명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국가나 이념 대신 세계를 가늠할 도덕의 부재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도덕은 전쟁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으며, 설혹 실생활에서 이념 가운데 하나를 옮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념은 적어도 남한의 문학에서는 일부의 전쟁문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문학 속에서 기능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소설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오히려 이념 전체에 대한 거부 내지 반성적 사유였다. 따라서 거부되거나 상실한 이념을 대신할 그 무엇이 결여된 상태가 바로 1950년대 문학이 놓인 현실이었던 것이다.

전후 작가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서기원의 작품 또한 한국전쟁과의 관련을 떠나서는 그 의미를 밝히기 어렵다. 특히 한국 전쟁을 체험한 지식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초기¹¹⁾ 소설에는 1950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도 전장의 군인(「오늘과 내일(1959)」, 「전야제(1961)」 등), 전선을 이탈한 탈주병이나 휴가병(「이 성숙한 밤의 포옹(1960)」, 「연가(1963)」 등), 또는 전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 때문에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대병(「암사지도(1956)」, 「음모가족(1958)」, 「박명기(1961)」, 「폴리그라프(1964)」 등)이 주로 주인공이나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전장에서 탈출을 감행한 이후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인물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갈등을 소설화해 내는 데에 있어서 작가 서기원의 필치는 더욱 예리하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인간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했고, 또 그 과정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살육과 패륜을 저지르게 되었던 기억을 떨치지 못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

서기원은 「안락사론」이 1956년 6월 『현대문학』을 통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한 이래, “성도덕의 문란이라는 사회적 측면과 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지적 고찰”이라는 독자성을 확보함으로써 전후 소설의 한 영역을 구축해 놓았다.

11) 조남현은 서기원의 소설세계를 크게 3기로 시기구분한 바 있다. “1956년에서 1962년까지를 제1기로, 1963년에서 1970년까지를 제2기로, 1971년에서 최근까지를 제3기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조남현, 「다양한 소재에서 정직한 인식으로」, 『암사지도』, 민음사, 1996, 361면) 전후 시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서기원의 1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같은 해에 발표된 「암사지도」(『현대문학』 1956.11)는 “전후의 허무적, 퇴폐적, 육체적인 경향의 최대공약수”¹²⁾를 나타내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후문학의 한 전형을 이루어낸 작품이라 할 만하다. 이 소설에서는 한 여자(윤주)를 기묘한 방식으로 공유한 두 젊은이(상덕, 형남)의 뒤틀린 내면 세계가 노골적으로 파헤쳐 펼쳐져 있다. 작가는 여기서 “폭탄에 의해 지붕 뚫린 집”에서 벌어지는 세 남녀의 기이한 애정행각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윤리와 가치가 전쟁으로 해서 마치 백지도처럼 진공화해 버린, 실존적인 불안의 상황 속에서 꿈과 의욕과 주체를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집에서 나태와 패덕한 쾌락 속에 빠져들고 마는 젊은이들의 정신적으로 손상된 삶”¹³⁾을 제시하고 있다.

형남은 소스라쳐 화집을 덮어 방구석에 밀어 놓았다. 방문이 열리고 상덕의 네 모친 얼굴이 방안의 전등불에 반사했다. (……) 상덕은 화집에 깊은 눈총을 주고, “……너 그럴 것 없다. 그러지 말구 최형과 자란 말야! 일주일에 한번만 더두 말 구 그러란 말야. 그쯤이 그중 건강에 좋지. 나야 이젠 삶중이 낫지만 너와 보조를 안 맞출 수도 없으니 난 토요일로 정하지. 너 일요일로 정하려느냐…… 그런 데 마구 다니다간 큰 변 난다.” 했다. 이를테면 윤주 공유설(共有說)이다. 형남은 당황했다. “너,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춘천서 교대로 놀던 일을 잊었니? 놀 래 일이 어딨어.” (……) 허긴 상덕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풀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치에 닿는 소리는 못 된다는 얼굴로 “그렇지만 미쓰 최가 들어 줄 리가 있니?” 했다. 그게 될 말이냐? 하려던 것이 그처럼 비루한 질문이 되었다.¹⁴⁾

‘父的 存在’로 상징화될 수 있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주는 이 소설은, ‘암사지도’라는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을 통해 모든 가치 기준이 무력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전후세대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군대에서도 한 달에 한 차례쯤 휴가를 얻으면, 전선에서 빠여 리 후방인 도읍지로 함께 ‘배설’ 하러 달리던” 상덕과 형남은 제대 이후에는 한 여자(윤주)를 공유하는 관계로

12) 천상병, 「구질서에의 안티테에게」, 『현대 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66, 468면.

1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 1945-1990』, 민음사, 1991, 111면.

14) 서기원, 「암사지도」, 『현대문학』 1956.11, 201면.

까지 타락한다. 윤주라는 한 여자를 상덕과 형남이라는 두 남자가 합의 하에 공유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는 「암사지도」는 “학생시대의 꿈과 의욕은 전쟁 때문에 마멸되어 버리고 남은 것은 나태한 사고의 순간적인 쾌락 밖엔 추구할 것이 없게 된” 전후세대의 일그러진 표정과 빗나간 생활을 담고 있다.

한편, 서기원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이 성숙한 밤의 포옹」(『사상계』 1960.6)은 전쟁 포로를 ‘시장기를 채우는 반찬으로’ 삼아 살해하는 전쟁의 현장을 그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나’ 또한 전쟁 중에 한 시골 처녀를 겁탈하고는 자신이 고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를 죽인 적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전쟁터에서 적군 포로를 함부로 죽이는 상사의 잔인한 태도에 적개심을 품거나 정의감에 사로잡혀 상사를 발로 걷어찰 수 있었던 과거의 양심적인 ‘나’가 아니다. 한 여자를 겁탈하고 살해한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이제 “탕진해 버린 육체의 소유자가 된” ‘나’는 자진하여 창부와 동침하고 사창가를 기웃거린다. 차라리 철저한 타락에의 길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잉태기」(『현대문학』 1959.4)에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학생 승숙은 6·25가 일어나면서 인민군 아전병원에서 간호사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야전 병원이 평양으로 이동하던 중 그녀는 탈출을 감행하였고, 도중에 최인호 중위에게 붙잡혀 인민군의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 충격당하고 만다. 가까스로 그녀는 최중위의 운전병인 김도섭에 의해 구출되었고 바로 그와 동거생활을 하게 된다. 제대 후 법과대학 복학을 포기하고 운전수로 취직하여 그럭저럭 살고 있는 도섭은 전쟁으로 좌절된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승숙에 대한 가해적인 행위로 해소하려 한다. 승숙이 과거에 인민군에게 능욕당했으리라는 의심을 품고 그녀를 경멸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사창가를 전전한다. 한편, 승숙은 자신을 구해준 도섭에 대한 의무감과 본능 충족의 욕구로 인해 도섭과의 동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철훈이라는 대학생이 그녀의 집에 하숙을 시작한 이후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외도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만다.

이외에도 자신의 한탕주의를 위해 소위 애인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

반」(『현대문학』 1958.9)에서는 극동 통신사 경제부 기자인 성순이 동해은행이 저지른 일련의 부정대부사건을 취재하여 '단 한 개의 기사를 쓰기 위해' 그 은행에 근무하는 상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녀를 유혹한다. 또 「사지연습(四肢演習)」(『현대문학』 1960.5)에는 간첩 혐의로 불잡혀온 한 남자가 취조와 고문을 당하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는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의 고통에 못 이겨 이제껏 숨겨왔던 자신의 삶의 비밀, 즉 살인과 강간으로 얼룩진 과거의 행적을 자신도 모르게 털어놓고 만다. 이 작품의 주의를 끄는 것은, 작가가 끝까지 그의 자백이 사실인지, 혹은 그가 정말 간첩인지 여부에 는 관심이 없고 단지 고문의 잔인함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가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서기원의 초기 소설들에서는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규범과 의무, 명령과 금지의 부재라는 각도에서 전후의 상황이 조명되고 있다. 사회적 규범과 금기의 상징이란 '상징적 아버지' 즉 '아버지의 이름'¹⁵⁾으로 대표되는 금지와 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은 상징계에 위치해 있으면서 문화적인 형태로 현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계의 범주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인간 사회의 법, 도덕, 윤리, 규칙을 의미하는 언어적 상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만약 이 '아버지의 이름'이 권위를 잃으면 사회와 법은 무너지게 된다.

서기원의 소설들에서 이러한 권위와 전통의 상징인 '부적 존재'의 결여는, 이미 언급한 작품들에서와 같이 윤리와 도덕의 부재라는 상징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의 부재라든가 아버지 혹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존재의 무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일상의 윤리의식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5) 이 개념은 프로이트의 『토텅과 타부』에 묘사되어 있는 아버지의 신화적 형상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이것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법과 불가분하게 연관된 이름을 가진 엄격하고 원초적인 아버지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상은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추상화된 아버지의 역할, 즉 법의 시행자로서의 기능을 상징한다. 이 법의 시행자가 지니고 있는 금지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아이의 사회적 정체성을 결정함으로써, 아이는 상징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인간 관계의 법칙에 복종하게 된다.(S. Freud, 「토텅과 타부」, 『종교의 기원』, 프로이트 전집 16, 이윤기 역, 열린책들, 1997 참조)

그의 초기작 「암사지도」에서부터 아버지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버지의 권위나 기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 그저 '그 사나이'쯤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그들 부자 관계에서는 그리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윤주라는 한 여자를 두 남자가 공유하는 비상식적인 삼각관계 속에서 윤주가 임신을 하게 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틀림없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애 아버지겠죠. 하지만 그건 두 분이 다 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건 내 것이란 것뿐이거든요. 당신들엔 아무 권리가 없어요.”¹⁶⁾

이제껏 서기원의 작품들 중에서 별로 언급된 적이 없는 「팔라이야기」도 예외가 아니다. 단 이 작품은 그가 즐겨 다루는 '탈주병 모티프'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당대 짚은 남녀의 문란한 성풍속도를 가벼운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만하다. 상과대학생 김우남은 애인 정애의 육체에 짖증이 나자 그녀를 떼어낼 궁리를 한다. 이미 그에게는 여자에게 “애를 배개하고 기십만 환씩 날려 보낸 일”이 수차례 있다. 그런데 어느날 정애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자, 우남은 그녀가 밴 아이의 아버지가 반드시 자기일 리는 없다고 정애의 不貞을 상상하는 한편, 뉘 자식이든 낳아서 귀찮을 것이라는 이유로 정애에게 낙태를 강요한다. 이러한 우남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자책도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스스로 자기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해왔기 때문이다.

장차 아버지한테서 돈을 더 착취해야 한다. 착취. 공산당 패들이 불로소득이란 말과 뒤편벽으로 쓰고 있다. 우남에겐 그 뜻이 아니다. 불로소득이란 아버지가 터무니 없이 벌어들이는 돈을 말함이요, 착취란 우남 자신이 불로소득인 아버지의 돈을 재차 불로소득으로 뺏는 바로 그것이다. 여간 귀처않은 논법이 아니지만 멋떠러진 규정이라고 우남은 만족하였다. 그러나 그의 착취란 개념 속에는 인간적인 지나치게 인간적인 '노스탈지어'가 깃들여 있었으니, 다름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한테서 뺏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머니 생전에 바치지 못한 효도를 늦으나마 갚는 듯한

16) 서기원, 「암사지도」, 앞의 책, 212면.

기묘한 기분을 실컨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질투심이 강했다. 아버지는 굉장히 돈을 가졌다. 굉장한……. 일례를 들자면 지난 연말 때, 아버지는 그의 고무도장 싸인과 도장만이 잔뜩 찍혔을 뿐 숫자가 없는 수표 너댓장을 연하장과 동봉해서 몇몇 나리들에게 보냈다. (중략) 아버지의 돈이 마구 흘러간다. 주로 계집들에게 흘러간다. 당최 견딜 수 없는 일이다.¹⁷⁾

이밖에도 현실적인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몰락해버린 아버지의 존재가 부각되는 「음모가족」에서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구세대의 몰락과 기존의 가치들이 붕괴되어가는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피난길에 자식들에 의해 버려진 칠순의 노인이 등장하는 「오늘과 내일」도 '부의 부재'라는 서기원의 현실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에 해당한다.

3. 죄의식으로의 도피와 부친살해의 욕망

서기원은 전쟁의 현장을 담아내거나 전후의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임상적인 기록에 치중하여 현장성만을 리얼하게 추구하거나 전쟁의 비정성에 항의하기보다는 전쟁이란 상황 속에 놓인 의식을 끈질기게 추구했다는 점에서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구별된다. 말하자면 그의 문학은 관념의 절대적인 형상이 외부적 현실을 무력화시키는 장용학이나 손창섭의 문학에 비해 훨씬 인간의 의식의 구체성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면모에 대해서는, “전쟁 소설이 필연적으로 귀결되기 마련인 反戰소설의 면모를 약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전쟁이라고 하는 일견 非知的인 체험 대상을 극히 지적인 체험으로 승화시켜 놓았다”¹⁸⁾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작가의 면모는 아마도 그가 전후의 앞선 세대들과 달리 바로 20세를 전후하여 전쟁을 체험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혹은 사회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가가 끊임없이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인식과 같은 것으로 작가의식을 본다면 그것은(아마튜어와 같은 작가의식) 직업이나 생활수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¹⁹⁾는 그의 고백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17) 서기원, 「딸라이야기」, 『현대문학』 1957.7, 133-134면.

18) 유종호, 「전쟁체험의 지적처리」, 『현대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66, 466면.

19) 서기원, 「非專門」, 『현대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66, 474면.

특히, 서기원은 1956년 「안락사론」으로 등단한 이후, 전후세대의 윤리의식을 성숙한 소설적 기법으로 드러낸 작가로 주목받아왔다. 그의 초기 소설에는 거의 대부분 군인, 탈주병이나 휴가병, 그리고 제대병 등 전쟁의 참상을 직접 체험한 젊은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행되는 잔인함과,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인간의 무기력함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고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억은 강한 죄의식을 동반한 채 그들의 의식을 움아맬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전후 세대 작가들에게서도 전쟁이 가져다준 정신적 외상이 심한 자의식과 함께 전통적 윤리와의 단절로서 현상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예컨대, 전쟁의 비정함에 염증을 느끼는 형제를 묘사한 「백지의 기록」(오상원)이나, 근친상간이라는 금단의 문턱을 넘어선 『원형의 전설』(장용학), 그리고 “가족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다”라고 외치는 『회색인』(최인훈)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 체험에서 기인하는 서기원의 초기 작품들에서 전쟁에 대한 자의식이 거의 예외없이 ‘죄의식’이라는 구체성을 띠고 전면화되어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를 다른 전후 작가들과 구별지어 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면모는 그의 등단 데뷔작인 「안락사론」에서부터 비롯된다.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안락사론」은 100여 명씩이나 수용된 작은 방의 비좁은 틈바구니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는 포로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6.25의 와중에 납치되어 수용소에 수용된 김우진은 자기가 학식이 많고, 북로당 고위간부였던 숙부를 두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자부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제쳐두고 박연철이라는 인물이 수용소 안의 사람들에 의해 추대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우진은 그를 증오하다 못해 탈출을 모의하는 주모자라고 군관에게 밀고해 버린다. 의도했던 대로 박연철은 처형되지만, 이후 김우진은 자신의 비겁한 행위에 대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남쪽에서 북진하는 포성 소리가 들리자, 포로들은 트럭에 실려 처형장으로 이송되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우진은 자기의 배신으로 죽은 박연철을 떠올린다.

서기원의 대표작인 「이 성숙한 밤의 포옹」에서도 ‘죄의식’은 주인공의 행동

을 충동질하며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요 모티프가 된다. 최전방에 근무하던 주인공 '나'는 애인인 상회가 폐병으로 죽어간다는 전갈을 받고 전선을 무단이탈하여 후방의 도시로 털영한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돌아올 보증과 의무'를 새겨주는 휴가증을 받는 것조차도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사치'로 여겨졌던 것은 털영에 대한 절박감이 너무나 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가 상회를 찾아가는 것은 애인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전쟁터에서 상실한 '나' 자신의 인간을 마지막으로 '상회'에게서 회복해 보려는²⁰⁾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막상 상회가 있는 도시에 닿았을 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식욕과 성욕과 그리고는 허영 밖에 남지 않은" 후방의 현실이었다.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의 실상에 대한 도시의 무관심을 접하는 순간, "적병 하나를 여름날 시체에 들끓는 구더기만도 못한 생명으로 여겨 시장기를 채우는 반찬으로 삼았다 해서 어떤 의분 같은 것을 느꼈던" 과거의 '나'는 이제 너무나 지쳐버렸고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쟁터 어느 산 속에서 한 여인을 강간하고 살해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나'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만다. 결국 그는 상회의 집을 그냥 지나쳐 사창가를 찾아간다.

불현듯 산에서 내가 죽인 여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 올랐고 처참하게 일그러진 여인의 얼굴과 상회의 얼굴이 한데 겹쳐서 확대되어 눈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죽인 여자는 틀림없이 상회는 아니었다. 내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필경은 나와 똑같은 다른 놈한테 비슷한 욕을 당하게 마련인 것이 전쟁터의 현실이 아니냐고 다짐해 보았다. 나는 쓰레기통 근처를 헤매고 있는 갈비뼈가 양상한 개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차라리 그녀가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맹랑한 충동이 복받쳤다. (중략) 나는 뉘우쳤다. 뉘우침보다는 겁이 앞섰다. 그녀는 반드시 나를 고발하게 될 것이며, 그 때문에 나는 군법회의에 걸려 총살당하게 될 것만 같았지만 어찌나 숙명감마저 느껴졌다. 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나는 그 시체를 어느 후미진 바위 틈으로 날랐다. 나는 다시 총을 걸어지고 산을 내려갔다. 목이 타고 혀가 말랐다. 군침을 청했으나, 뻣뻣한 혀끝은 건조된 입천장만이 미끄러웠다. 나는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체험이 결국 나의 텅 빈 뇌장 속엔 결코 담아질 수가 없을 상 깊은 완전한 허탈 상태에 빠져 있었다.²¹⁾

20) 황순원, 「東仁賞 選後評 - '이 성숙한 밤의 포옹'의 가치」, 『사상계』 1960.10, 326면.

21) 서기원,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사상계』 1960.6, 399면, 401면.

서기원의 작품 중에서도 이러한 죄의식이 가장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박명기」이다. 형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인 주인공 '나'는 급기야 총검으로 형을 찌르고 만다.

그들은 나와 내 형이 아니었다. 덥수룩한 머리 모양까지 꼭같이 닮은 두 청년이었을 뿐이다. 결코 나와 내 형일 수는 없었다.

"젤러."

장화가 내질렀다. 나는 얼어붙은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너도 반동이지?"

그가 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네 형은 원수다. 네가 반동이 아니라는 증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전 못합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면서 애걸했다. 가벼운 쇠붙이 소리가 울렸다. 권총의 총구가 이쪽을 겨누고 있었다.

"열까지만 헤어주지. 하나, 둘……."

나는 장총을 움켜 쥐고 눈을 감았다.

"일곱, 여덟, 아홉."

나는 앞을 질렀다. 묵직한 충격이 총신과 내 팔로 반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도 돼."

내가 문을 향해서 두어 발 내 디뎠을 때, 등 뒤에서 총소리가 터졌다.

(중략)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형이 총살당했다고 알렸다.

형이 죽은 원인은 놈들의 권총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찌른 총검으론 살을 다쳤을 정도겠지. 놈들이 총을 쏜 사실이 바로 그걸 반증했지²²⁾。

이후 심한 죄의식에 시달리던 '나'는 전쟁터에서 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실명을 형을 살해한 대가라 여기고 자기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병신이 됨으로써 비로소 형의 육신을 총검으로 찌른 동작과 손목에 반사된 충격이 서로 상쇄될 수 있을 것 같은 발상에 매혹된" 것도 잠시였을 뿐, 시각을 제외한 그의 다른 감각은 변태스러울 정도로 예민해져 있어 오히려 "눈을 감고 형을 찌른 어느 청년의 동작을 좀더 생생하게 되살릴 수가 있었다." 곧, 그의 죄의식은 그 무엇으로도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외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밖에도 죄의식을 주요 모티프로 삼은 작품은 많다. 현장에서 아버지가 총

22) 서기원, 「박명기」, 『현대문학』 1961.9, 17면.

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던 아들의 죄의식을
화두로 삼은 「오늘과 내일」, 한 집안의 9대 종손인 소년이 간질을 앓고 있는
사촌이 죽기를 바라다가 실제로 그의 죽음을 대하고 죄의식에 빠지는 것을
문제삼은 「상속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서기원이 대부분의 초기 소설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의 죄의식은
근대적 도덕 혹은 윤리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그것의 붕괴에 대한 자의식의
결과인가. 사실상,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의 죄의식은, 법이나 도덕·윤리가 정
의나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환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³⁾ 그러나 그의 소
설에 나타나는 죄의식은 오히려 그 당사자가 자신을 더 깊은 타락 속으로 내
몰고 가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²⁴⁾ ‘부친 살해의 욕망’으로까
지 이끌린다는 점에서, 그러한 통상적인 의미의 자의식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죄의식은 진정한 것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탈출구로서 기능
한다고 하겠다. 즉, 서기원의 전후소설의 정체성을 이루는 ‘죄의식’은 ‘그것(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죄의식)으로
탈출하려는 하나의 도피처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23) F.Nietzsche, 『니체 전집-도덕의 계보 外』, 청하, 1997, 65-104면 참조. 니체는 죄
책감과 비양심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죄의식과 비양심은 모두 무력함
에서 나온 산물이며, 또한 원한, 증오 및 복수에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니체의 사유는 곧 프로이트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24) 죄의식으로 번민하던 인물들이 오히려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더욱 극단화시키는
면모는 「이 성숙한 밤의 포옹」의 ‘나’, 「전야제」의 ‘성호’, 「잉태기」의 ‘도섭’ 등에
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황순원의 다음 글은 죄의식이 자신을 도덕적 타락으로
내모는 계기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의 논리를 해명해주고 있다. “전쟁터에서 상
실한 ‘나’ 자신의 인간을 마지막으로 ‘상회’에게서 회복해 보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상회가 살고 있는 고장에 와서 ‘나’가 그네를 만남으로 해서 회복될
는지도 모르는 자기자신의 인간을 앞에 놓고 거기 곧장 부딪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이미 ‘나’는 병들어 있었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전쟁
이 가져다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나’는 자기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좀더 무르익기까지 인간 상실의 세계에 다시 침전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황순원, 앞의 글, 326면, 강조-인용자)

4. 일상/전쟁의 윤리와 ‘父의 不在’의 은폐

서기원의 전후 소설이 대부분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죄의식’이 그의 소설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쟁 체험의 기억 그 자체가 공범자로서의 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식이 반드시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체가 자신을 조율하는 법과 도덕의 존재를 자각하는 한에서 항상 동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상과 전쟁에서의 ‘죄의식’ 생성의 메카니즘은 상반된 상황에 대한 반응인 만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윤리의식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다가오는 근대적인 일상에서의 ‘죄의식’이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부의 부재’로 상징되는 전쟁의 상황에서 지니게 되는 죄의식의 실체를 규명해 보고 나아가 전쟁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법 혹은 ‘부적 존재’의 권위에 대한 자신의 복종이 진정한 행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믿음’에 근거한 자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때, ‘믿음’은 심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장의 실제 작용 속에서 구현되고 물질화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회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윤리적인 구성물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회현실은 ‘마치 ~이라는 듯이’²⁵⁾에 의해 지탱되며, 그 믿음이 상실되는 순간 사회적인 장의 조직 자체는 와해된다. 즉, 법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으로 무의미한(물상식한) 특징은 바로 법이 지니는 권위 속에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⁶⁾

25) 예를 들어, 우리는 마치 관료주의가 전능하다고 믿는다는 듯이, 혹은 마치 정당이 국민의 객관적인 이익을 대변해 준다는 듯이 행동한다. 법에 대한 근대적인 복종의 방식을 파스칼 식으로 정의하자면 ‘정신을 무의식적으로-무의미하고 물상식한-이끄는 자동운동’이다. Slavoj Ziz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Verso, 1989, 36-7면.

26) 들뢰즈는 고대에는 법에 복종하는 것이 정의였지만, 반대로 근대에 와서는 준법은 곧 죄의식을 불러온다는 것을 밝혀놓은 바 있다. “칸트에 따르면 법은 더 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상의 경험에서 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의 이러한 적나라한 원리는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어야만 한다. 즉 법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정의나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적이고 상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억압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법은 순수한 외형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의 권위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 억압되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일상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법을 지키는 행위는 이미 자동화된 기계와 같이 습관화된 것이다. 결국 법의 권위란 법을 지키려는 행위의 자동화가 무조건적일수록 강해지며, 윤리의식에 대한 인간의 강박관념 혹은 죄의식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근대 세계에 있어서 스스로의 내면에서 도덕적 의식이 명령하는 법의 준수에 대한 요구란 결과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죄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²⁷⁾ 이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지나게 되는 도덕 혹은 윤리 의식의 실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상과 가장 대립적인 현실로 구성되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죄의식의 정체는 무엇인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언어적인 상징으로 표현되는 법과 도덕의 전통적인 권위가 모조리 부정되어 버린다. 한마디로, 아버지(父的 存在)는 무능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은 그러한 텅 빈 법,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한 권위마저도 객관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 존재'로서의 법과 윤리가 마치 존재한다고 믿는 듯이 주체는 죄의식을 끌어안는다. 근대의 큰 타자, 부적 존재 즉, 모든 전통적인 권위, 일상적인 도덕이 무너져버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상 선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선 자체가 법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은, 법의 옳고 그름을 좌우하는 어떤 상위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칸트의 도덕법은 순수 형식의 표상이며, 내용이나 대상이나 지역, 상황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도덕법은 법의 형식이며, 그것을 근거지울 수 있는 모든 상위의 원리를 배제한다.” (중략) “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복종하는 그만큼 정의로운 자가 되거나, 정의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 미리부터 죄의식에 사로잡히며, 또 법에 엄격히 복종할수록 죄의식은 더욱 커진다.”¹⁾ Gilles Deleuze, *Masochism*, 이강훈 역, 인간사랑, 1996, 93면, 94-95면

27) Gilles Deleuze,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 역, 민음사, 1997, 204면.

죄의식을 떠맡음으로써 그러한 ‘부(큰 타자)의 不在’는 은폐될 수 있는 것이다. 父로 상징되는 존재의 무능함 혹은 그것의 부재를 ‘부’ 자신이 알지 못하도록 주체가 기꺼이 스스로 죄의식을 떠맡음으로써, 그리고 그 주체가 느끼는 죄의식의 강도에 비례하여 부로 상징되는 존재 혹은 그의 능력은 구제될 수 있다.²⁸⁾ 말하자면 죄의식을 타자(父)에게 투사하려는 순간, 그 타자의 무능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차라리 자기 스스로 회생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드러난 죄의식의 정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서기원의 소설에 나타나는 죄의식의 의미를 더욱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로 ‘부친 살해의 욕망’이다. 「박명기」에서 형을 살해한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는 ‘나’는 아버지가 죽어주기를 바라던 평상시의 욕망을 우연한 기회에 실행하게 된다. 아버지의 밥상을 차리러 나선 ‘나’는 고의적으로 원밥을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 승능 속에 약을 풀어놓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손은 싸늘했다. 아버지까지도 내가 죽였지. 부엌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린 것이 큰 잘못이었지. 주발에 반쯤 남았던 찬밥은 쉰밥이었지. 쉰 내음새를 맡았었는데. 그건 틀림없이 쉰밥이었다. 풀자루에 들어갈 쉰밥이었다. 나는 쉰 내를 의식했으면서도 그걸 상위에 엎어 놓았다. 그 뿐이랴! 나는 그 미지근한 승능 속에 가루약을 풀었지. 나는 바지주머니 속에서 약지를 끄집어 내어 승능 대접 위에서 던 다음, 종이는 봉‘아궁이 속으로 깊숙이 던져버렸지.²⁹⁾

말하자면 이 ‘부친 살해의 욕망’이란, 아버지라는 큰 타자의 무능함 혹은 부재가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자신이 재빨리 그 죄를 떠맡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텅 빈 권위의 가면으로 무능함을 가리는 사실을 승인하느니보다 죄의식을 떠맞는다는 것, 이것은 아들이 법의 대표자로서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요컨대, ‘부친 살해의 욕망’은 아버지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미끼lure

28) 이는 인간의 원죄의식에 대한 지젝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원죄의식이란, 신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 알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시종일관 죄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 Slavoj Zizek, *Enjoy your Symptom!*, 주은우 역, 한나래, 1997, 92면.

29) 서기원, 「박명기」, 『현대문학』 1961.9, 24면.

인 것이다.³⁰⁾

작가 서기원에 있어서 전쟁은 단순히 소설 속의 배경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의 경험은 일상 속에 은폐되어온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맨 얼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곧 근대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의 실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대적인 모순의 폭발적 형태로서의 전쟁의 의미를 작가가 자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근대적 모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작가 서기원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맷음말

일반적으로 1950년대 문학이 제기하고 있는 근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장용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그 외의 별다른 논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고는 서기원의 전후소설을 ‘부의 부재’와 ‘죄의식’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고, 이를 ‘모더니티’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서기원의 소설에서 주로 죄의식을 추동시키는 계기들, 즉 한 여성에 대한 두 남자의 공유, 부친 살해, 비양심적 밀고 행위와 같은 것들은 근대 이후 사회의 이면에서, 혹은 공공연한 방식으로까지 자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욱 노골적이고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는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도 근대적 모순의 표출이라는 차원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전쟁의 전유물인 양 전후소설을 통해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전쟁이 지닌 근대적인 의미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전쟁은 단지 근대의 총체적 위기가 폭발하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근대란, 정의나 진리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나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의해 유지된다’는 근대의 감추어진 실체를 대면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다.

30) Slavoj Zizek, 앞의 책, 제 2장 참조.

“전쟁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만 승패를 초월해서 자기를 투신할 수 있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전야제』中)는 작가 서기원의 간접적인 발언은 한국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라 할 수 있는바, ‘부의 부재’와 ‘죄의식’을 화두로 삼은 그의 전후문학은 근대의 실상에 대한 자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요컨대, 전쟁의 경험에서 비롯된 ‘죄의식’이 한 작가에게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부적 존재’의 무능함 혹은 그것의 부재를 확인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해 버리고 말 경우 ‘한줄기 소나기’로서의 전쟁이 지나가 버리고 난 후 근대적 일상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참 고 문 헌

- 구인환, 「전후 한국 문학의 지형도」,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김윤식, 「앓는 세대의 문학」, 『현대문학』, 1969.10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제2판, 일지사, 1994
 김윤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종욱, 「서기원의 초기소설에 나타난 자기모멸과 고백의 욕망」, 『한국근대문학연구』, 태학사, 2001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 사회와 윤리』, 문학과 지성사, 1991
 김훈, 「서기원론」, 『한국현대작가연구』, 민음사, 1989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문홍술, 「전후의 병리학적 지도와 새로운 전망 모색」, 『현대문학』 1997.11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성민엽, 「역사에의 환멸과 풍자」, 『전야제』, 책세상, 1988
 송하춘 · 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우한용, 전후문학의 양상과 연구과제,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 유종호, 「전쟁체험의 지적처리」, 『현대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66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 1945-1990』, 민음사, 1991
- 정현기, 「허무주의 혹은 냉소주의의 소설적 전개」, 『소설문학』 1984.9
- 조남현, 「다양한 소재에 정직한 인식으로」, 『암사지도』, 민음사, 1966
- 차혜영, 「서기원의 1950대 소설」, 『한양어문연구』, 1995.12
- 천상병, 「구질서에의 안티테에제-〈암사지도〉」, 『현대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66
- 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 연구』, 평민사, 1991
-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편,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 황순원, 「東仁賞選後評」, 『사상계』 1960.10
- A.Eysteinsson, *The Concept of Modernity*, 임옥희 역, 현대미학사, 1996
- F.Nietzsche, 『도덕의 계보 / 이 사람을 보라』, 김태현 역, 청하, 1997
- G.Deleuz, *Masochism*, 이강훈 역, 인간사랑, 1996
- G.Deleuz,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 역, 민음사, 1997
- S.Freud, 「토텁과 타부」, 『종교의 기원』, 프로이트 전집 16, 이윤기 역, 열린책들, 1997
- S.ZiZek, *Enjoy your Symptom!*, 주은우 역, 한나래, 1997
- S.ZiZ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Verso, 1989

〈Abstract〉

The Absence of a Father and the Modernity in the Literature in 1950's

Kim, Min-jeong

Seo, Ki-Won is representative among many postwar generation writers, because he shows an ethical conscience of the generation very well. His early(1956-1962) novels are describing a mental state of young people at the time of Korean war or since the end of the war, and is subliming a state of the war to a mental experience.

Generally, a war is a field of massacre and immorality. Therefore in a battlefield and in the rear, numerous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kill of people to escape my death occasionally, and a result of it, a sense of guilt arises. And the guilty conscience about inhuman acts is in order to conceal the Father(the Other, symbolic order)'s incapacity from other people. An existence(or its capacity) that is symbolized by the Father is able to be redeemed in proportion to a guilty conscience that one feels. But this guilty conscience has nothing to do with hearties. Therefore this means an escape into guilty conscience, not from it. In order to have a thorough grasp of this paradox, we have to connect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a guilty conscience to an inconsistency of the Other(or a symbolic order).

Moreover, what demonstrates this is a desire of patricide. This is a lure in order to cover up an absence of a Father or an incapacity of him. And

an extreme situation of a war becomes a field which discloses an actual state of modernistic ideology which is covered up in everyday life.

Key Words : a sense of guilt, a desire of patricide, an absence of the Father